

1회차	내용	어문규정
	목표	암기

1. 표준 발음법

PART 1. 자음과 모음

1. 퇴계 [퇴:계/퇴:계]
2. 뵈어 [뵈어/뵈여/뵈어/뵈여]
3. 가져 [가져]
4. 돈쳐 [돈쳐]
5. 굳혀 [굳혀]
6. 맞혀 [맞혀]
7. 예의 [예의/예이]
8. 시계 [시계/시계]
9. 결례 [결례]
10. 날리리 [날리리]
11. 희망 [희망]
12. 무늬 [무늬]
13. 주의 [주의/주이]
14. 혐의 [혐비/혐비]
15. 다근이 [디그시]
16. 키웁이 [키웁이]
17. 피웁이 [피웁이]

2. 한글 맞춤법

PART 1. 기본

1. 꺾이(○)
2. 울으니(×), 우니(○)
3. 넘어지다(○)
4. 돌아가다(○)
5. 드러나다(○)
6. 이것은 책이오.(○)
7. 이것은 책이요.(×)
8.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오.(○)
9. 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붓이오.(×)
10. 얹어(○), 얹어(×)
11. 읽어요(○), 요는 보조사.

PART 2. 암기 ① - 1. 두음 법칙

1. 당뇨(○)
2. 신여성(○) [신녀성]
3. 공염불(○) [공념불]
4. 졸업 연도(○)
5. 1986년도(○)
6. 신년도(○), 구년도(○)
7. 쌍룡(○) [쌍룡]
8. 백분율(○) [백분율]
9. 출석률(○)
10. 역이용(○) [여기용]
11. 연이율(○) [연니율/여니율]
12. 열역학(○) [열려학]
13. 가정란(○)
14. 어머니난(○)
15. 서비스율(○)
16. 가십난(○)

2회차	내용	어문규정
	목표	암기

1. 표준 발음법

PART 2. 받침의 소리

1. 닳다 [닥따]
2. 키읓 [키읓]
3. 녋 [녋]
4. 앓다 [안:따]
5. 밧다 [밥:따]
6. 넓죽하다 [녋쭈카다]
7. 넓둥글다 [녋똥글다]
8. 닭 [닥]
9. 흑과 [흑파] ([흘파] 아님)
10. 맑게 [말께] ([막께] 아님)
11. 늣지 [늣찌] ([늘찌] 아님)
12. 삼 [삼:]
13. 읍고 [읍꼬]
14. 읍다 [읍따]
15. 놓고 [노코] ([뇨코] 아님)
16. 많고 [만:코]
17. 먹히다 [머키다]
18. 밝히다 [발키다]
19. 꽃히다 [꼬치다] ([폰치다] 아님)
20. 술하다 [수타다] ([슨타다] 아님)
21. 당소 [다:쏘] ([달쏘] 아님)
22. 많소 [만:쏘]
23. 놓는 [논는]
24. 앞네 [안네]
25. 똥네 [똥레] ([툄네] 아님)
26. 많아 [마:나]
27. 있어 [이씨] ([인씨] 아님)
28. 녋이 [녋씨]
29. 닭을 [달글] ([다글] 아님)
30. 꿀이 (독특한 케이스) [골씨]
31. 늣 앞 [느밥]
32. 겉옷 [거돋]
33. 꽃 위 [꼬뒤]
34. 맛있다 [마신탐, 마덜따]
35. 녋 없다 [녋겍따]
36. 닭 앞에 [다가페]
37. 값어치 [가머치] ([갑서치] 아님)
38. 값있는 [가빈는]

2. 한글 맞춤법

PART 2. 암기 ① - 2. 준말

- 1. 디디고 → 딛고
- 2. 디디어 → 디더
- 3. 무엇이 → 뭇이, 무에
- 4. 무엇을 → 뭇을, 무얼, 뭇
- 5. 조리로 → 줄로
- 6. 가아 → 가
- 7. 켜어 → 켜
- 8. 개어 → 개
- 9. 세었다 → 셋다
- 10. 하였다 → 했다
- 11. 두어 → 뒤
- 12. 놓아 → 놔
- 13. 놓이다 → 뇌다 (뇌어, 뇌도 가능)
- 14. 괴었다 → 께다
- 15. 씨었다 → 췌다
- 16. 막히어 → 막혀
- 17. 버티어 → 버텨
- 18. 치이어 → 치여
- 19. 펴이다 → 펴다
- 20. 싸이어 → 싸여, 싸어
- 21. 뜨이어 → 띄어 (눈이 뜨였다일 때 가능)
- 22. 그렇지 않은 → 그렇잖은
- 23. 변변하지 않은 → 변변찮은
- 24. 간편하게 → 간편케
- 25. 연구하도록 → 연구토록
- 26. 혼하다 → 혼타
- 27. 아니하다 → 았다
- 28. 그러하다 → 그렇다
- 29. 어떠하다 → 어떻다

- 30. 거북하지 → 거북지
- 31. 깨끗하지 않다 → 깨끗지 않다 → 깨끗잖다
- 32. 익숙하지 않다 → 익숙지 않다 → 익숙잖다

3회차	내용	어문규정
	목표	암기

1. 표준 발음법

PART 3. 음의 동화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단이 [미:다지] 2. 밭이 [바치] 3. 벼훅이 [벼훅치] 4. 굳히다 [구치다] 5. 닫히다 [다치다] 6. 묻히다 [무치다] 7. 밭이랑 [바치랑/반니랑] 8. 흙이불 [혼니불] 9. 묵묵이 [몽묵씨] 10. 흥만 [흥만] 11. 논는 [논는] 12. 밟는 [밤:는] 13. 읊는 [음는] 14. 없는 [엄:는] 15. 책 넣는다 [창넌는다] 16. 흙 말리다 [흥말리다] 17. 담력 [담:녁] 18. 향로 [향:노] 19. 백리 [뺑니] 20. 협력 [험녁] 21. 광한루 [광:할루] 22. 대관령 [대:괘령] 23. 할는지 [할른지] 24. 활네 [할레] 25. 뚫는 [푯른] | <ol style="list-style-type: none"> 26. 의견란 [의:견난] 27. 임진란 [임:진난] 28. 생산량 [생산냥] 29. 결단력 [결판녁] 30. 공권력 [공뀐녁] 31. 동원령 [동:원녕] 32. 상견례 [상견네] 33. 횡단로 [횡단노] 34. 이원론 [이:원논] 35. 입원료 [이뵤노] 36. 구근류 [구근뉴] 37. 감기 [감:기] 강:기(x) 38. 젓먹이 [전머기] 점머기(x) 39. 문법 [문뵤] 뭉뵤(x) 40. 되어 [되어/되여/뵤어/뵤여]
 사전에서는 [되어/뵤여] 41. 뵤어 [뵤어/뵤여/뵤어/뵤여]
 사전에서는 [뵤어/뵤여] 42. 기어 [기어/기여] 43. 피어 [피어/피여] 44. 뛰어 [뛰어/뛰여] 45. 아니오 [아니오/아니요] |
|---|--|

2. 한글 맞춤법

PART 3. 응용 ① - 1. 단어 형성(표제어)

- 1. 길이 : 길-(어근) + -이(접사) : 명사, 부사
- 2. 깊이 : 깊-(어근) + -이(접사) : 명사, 부사
- 3. 높이 : 높-(어근) + -이(접사) : 명사, 부사
- 4. 맥이 : 맥-(어근) + -이(접사) : 명사
- 5. 별이 : 별-(어근) + -이(접사) : 명사
- 6. 걸음 : 걷-(어근) + -음(접사) : 명사
- 7. 얼음 : 얼-(어근) + -음(접사) : 명사
vs. 얼-(어간) + -ㅁ(어미) → 얼(동사)
- 8. 울음 : 울-(어근) + -음(접사) : 명사
vs. 울-(어간) + -ㅁ(어미) → 울(동사)
- 9. 웃음 : 웃-(어근) + -음(접사) : 명사
vs. 웃-(어간) + -음(어미) → 웃음(동사)
- 10. 노름 : 놀-(어근) + -음(접사)
- 11. 마감 : 막-(어근) + -암(접사)
- 12. 마개 : 막-(어근) + -애(접사)
- 13. 넘어(동사), 너머(명사), 너무(부사)
- 14. 차마(동사), 차마(부사)
- 15. 날날이 : [날(어근) + 날(어근)] + -이(접사) :
부사 (날날(명사))
- 16. 앞앞이 : [앞(어근) + 앞(어근)] + -이(접사) :
부사 (앞앞(명사))
- 17. 집집이 : [집(어근) + 집(어근)] + -이(접사) :
부사 (집집(명사))
- 18. 삼발이 : [삼(어근) + 발(어근)] + -이(접사) :
명사 (삼발(명사))
- 19. 바가지 : 박(어근) + -아지(접사) : 명사
- 20. 바깥 : 밖(어근) + -알(접사) : 명사
- 21. 지붕 : 집(어근) + -웅(접사) : 명사
- 22. 이파리 : 잎(어근) + -아리(접사) : 명사

- 23. 웃기다 : 웃-(어근) + -기-(접사) : 사동사
- 24. 올리다 : 올-(어근) + -리-(접사) : 사동사
- 25. 쌓이다 : 쌓-(어근) + -이-(접사) : 피동사
- 26. 잡히다 : 잡-(어근) + -히-(접사) :
피동사, 사동사
- 27. 낮추다 : 낮-(어근) + -추-(접사) : 사동사
- 28. 일으키다 : 일-(어근) + -으키-(접사) :
사동사
- 29. 돌이키다 : 돌-(어근) + -이키-(접사) :
사동사
- 30. 없애다 : 없-(어근) + -애-(접사) : 사동사
- 31. 받치다 : 받-(어근) + -치-(접사) : 동사
- 32. 부딪치다 : 부딪-(어근) + -치-(접사) : 동사
- 33. 부딪뜨리다(○), 부딪트리다(○)
- 34. 쏘뜨리다(○), 쏘트리다(○)
- 35. 미덥다 : 믿-(어근) + -업-(접사) : 형용사
- 36. 우습다 : 웃-(어근) + -음(접사) : 형용사
- 37. 미쁘다 : 믿-(어근) + -브-(접사) : 형용사

4회차	내용	어문규정
	목표	암기

1. 표준 발음법

PART 4. 경음화

- 1. 녃받이 [녃빠지]
- 2. 샳돈 [삭똥]
- 3. 닭장 [닥짱]
- 4. 받갈이 [받까리]
- 5. 넓죽하다 [넙쭈카다]
- 6. 읍조리다 [읍쪼리다]
- 7. 값지다 [갑찌다]
- 8. 닭다 [닭:따]
- 9. 앉고 [안꼬]
- 10. 굶기다 [굸기다]
- 11. 안기다 [안기다]
- 12. 삶과 인생 [삼:과 인생]
- 13. 넓게 [널께]
- 14. 훑소 [흘쏘]
- 15. 떨지 [떨:찌]
- 16. 닭과 [닥파]
- 17. 삶과 [삼:과]
- 18. 외곶의 [외골씨 / 워골씨]
- 19. 읍다 [읍따]
- 20. 불법 [불법 / 불뻬]
- 21. 갈등 [갈똥]
- 22. 몰상식 [몰쌍식]
- 23. 할 것을 [할 거슬 / 할꺼슬]
- 24. 만날 사람 [만날 사람 / 만날씨람]
- 25. 만난 사람 [만난 사람]
- 26. 할걸 [할꺄]
- 27. 할세라 [할쎄라]
- 28. 할지라도 [할찌라도]
- 29. 문고리 [문꼬리]
- 30. 눈동자 [눈똥자]
- 31. 굴속 [굴:쓱]
- 32. 술잔 [술짚]
- 33. 잠자리 [잠찌리]
- 34. 잠자리 [잠자리]

2. 한글 맞춤법

PART 3. 응용 ① - 2. 부사 (이, 히)

1. 도저(到底)(어근) + -히 → 도저히
(도저하다 ○)
2. 깨끗(어근) + -이 → 깨끗이 (깨끗하다 ○)
3. 꼼꼼(부사) + -이 → 꼼꼼이 (꼼꼼하다 ×)
4. 가깝-(ㅂ불규칙 용언) + -이 → 가까이
(가깝하다×)
5. 겹겹(첩어) + -이 → 겹겹이
(‘겹겹하다’는 있지만, 겹겹히로 쓰지 않는다.)
6. 느긋(어근) + -이 → 느긋이 (느긋하다 ○)
7. 일찍(부사) + -이 → 일찍이 (일찍하다 ×)
8. 극(어근) + -히 → 극히 (극하다 ○)
9. 가만(어근) + -히 → 가만히 (가만하다 ○)
10. 열심히(어근) + -히 → 열심히
(‘열심히하다’는 없지만, 열심히로 쓴다.)

PART 3. 응용 ① - 3.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1. 갈- + -니 → 가니
2. 둥글- + 니 → 둥그니
3. 굵- + -어 → 그어
4. 붓- + -어 → 부어
5. 빼앗- + -아 → 빼앗아
6. 그렇- + -네 → 그러네(원칙)/그렇네(허용)
7. 그렇- + -어 → 그래
8. 까맣- + -아 → 까매
9. 하얗- + -아 → 하애
10. 푸- + -어 → 퍼
11. 따르- + -아 → 따라
12. 나쁘- + -아 → 나빠
13. 싣-[載] + -어 → 실어
14. 붙- + -어 → 붙어
15. 일컫- + -어 → 일컬어
16. 노엽- + -어 → 노여워
17. 돕-[助] + -아 → 도와
18. 곱-[麗] + -아 → 곱와
19. 운동하다 + -아 → 운동하여 → 운동해
20. 가르- + -아 → 갈라
21. 부르- + -어 → 불러
22. 버르- + -어 → 벌러
23. 지르- + -어 → 질러

5회차	내용	어문규정
	목표	암기

1. 표준 발음법

PART 5. 음의 첨가

1. 숨이불 (합성어)
2. 흠이불 (파생어)
3. 맨입 (파생어)
4. 꽃잎 (합성어)
5. 한여름 (파생어)
6. 색연필 (합성어)
7. 콩엿 (합성어)
8. 막일 [막닐] → [망닐]
9. 내복약 [내:복약] → [내:봉약]
10. 늑막염 [늑막념] → [능망념]
11. 물약 [물약] → [물략]
12. 불여우 [불녀우] → [불려우]
13. 서울역 [서울녀] → [서울력]
14. 꽃잎 [끈입] → [끈닙] → [끈닙]
15. 흠이불 [흠이불] → [혼니불] → [혼니불]
16. 솔잎 [솔입] → [솔닙] → [솔립]
17. 물엿 → [물연] → [물녘] → [물련]
18. 송별연 [송:벼련]
19. 등용문 [등용문]
20. 검열 [검:녘 / 거:멸]
21. 금융 [금농 / 그똥]
22. 냇가 [냇가] → [냇:까] ([내:까]도 됨.)
23. 콧등 [콘등] → [콘똥] ([코똥]도 됨.)
24. 깃발 [긴발] → [긴빨] ([기빨]도 됨.)

25. 콧날 [콘날] → [콘날]
26. 아랫니 [아랫니] → [아랫니]
27. 뒷마루 [똥:마루] → [똥:마루]
28. 나뭇잎 [나뭇입] → [나뭇닙] → [나뭇닙]
29. 깻잎 [깻입] → [깻닙] → [깻닙]
30. 베갯잇 [베갯인] → [베갯닌] → [베갯닌]
31. 문고리 [문꼬리]
32. 굴속 [굴:속]
33. 잠자리 [잠짜리]
34. 월요일 [워료일] (연음)
35. 일요일 [이료일] (연음)
36. 독약 [도약] (연음)
37. 경축일 [경:추길] (연음)
38. 그림일기 [그:리밀기] (연음)

2. 한글 맞춤법

PART 4. 암기 ② - 1. 사이시옷 표기

1. 머릿-기름(○), 고래-기름(○), 돼지-기름(○)
2. 깻-잎(○), 나뭇-잎(○), 댕-잎(○)
3. 아랫-방(房)(○), 셋방(貰房)(○)
4. 전세(傳貰)-방(房)(○)
5. 소줏(燒酒)-집(○), 맥줏(麥酒)-집(○),
처갓(妻家)-집(○), 외갓(外家)-집(○),
종갓(宗家)-집(○), 전셋(傳貰)-집(○)
6. 기와-집(○), 초가(草家)-집(○)
7. 피자-집(○)
8. 존댓(尊待)-말(○), 혼잣-말(○), 노랫-말(○)
9. 머리-말(○), 인사(人事)-말(○),
예사(例事)-말(○), 반대(反對)-말(○)
10. 곳간(庫間)(○), 퇴간(退間)(○), 차간(車間)(○)
11. 마구(馬廐)-간(間)(○), 기차(汽車)-간(間)(○)
12. 기댓(期待)-값(○), 대퓏(代表)-값(○),
최댓(最大)-값(○), 최솏(最小)-값(○)
13. 두붓(豆腐)-국(○), 만똏(饅頭)-국(○),
북엇(北魚)-국(○)
14. 시래깃-국(○), 선깃-국(○), 갈빏-국(○),
고깃-국(○), 김칏-국(○), 근똏-국(○),
냉잇-국(○)
15. 녹두(綠豆)-국(麴)(○)
16. 보랏-빏(○), 구랏-빏(○)
17. 두루-빏(○), 오렌지-빏(○)
18. 연똏(軟豆)-빏(○), 우윏(牛乳)-빏(○),
포똏(葡萄)-빏(○), 자줏(紫朱)-빏(○),
장똏(薔薇)-빏(○), 비춏(翡翠)-빏(○)
19. 똏-일(○), 농사(農事)-일(○)

20. 등꼏(登校)-길(○), 하꼏(下校)-길(○),
출셋(出世)-길(○), 혼삏(婚事)-길(○),
전차(電車)-길(○), 농삏(農事)-길(○)
21. 고갓-길(○), 장삏-길(○), 안갓-길(○),
아랫-길(○), 기차(汽車)-길(○)
22. 동아-줄(○), 고무-줄(○), 가로-줄(○),
세로-줄(○)
23. 및-줄(○), 그넏-줄(○), 전깃(電氣)-줄(○)
24. 막넏-동생(○)
25. 오랏-동안(○)

PART 4. 암기 ② - 2. 다양한 단어 형성

1. 굶다랏다(○), 굶직하다(○)
2. 넓적하다(○), 넓둥글다(○), 넓죽하다(○)
3. 널따랏다(○), 널찍하다(○)
4. 짤따랏다(○), 짤막하다(○)
5. 알따랏다(○), 알팍하다(○)
6. 높다랏다(○)
7. 늣수그레하다(○)
8. 늣정이(○), 늣그막(○)
9. 뜰게질(○), 뜰개질(○)
10. 얼루기(○)
11. 싫-증(○)
12. 흙-내(○)(명사)
13. 흙-아비(○)
14. 흙-몸(○)
15. 골병(○)
16. 며칠(○)
17. 오라비(○)
18. 부리나케(○)
19. 송곳니(○)

6회차	내용	어문규정
	목표	암기

1. 로마자 표기법

1. 로마자 표기법은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지 않는다. (○, ×)

×,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모음

- ① ㅏ : eo
- ② ㅓ : eu
- ③ ㅕ : ae
- ④ ㅛ : oe
- ⑤ ㅜ : wi

3. 이중모음

- ① ㅑ : yeo
- ② ㅓ : yae
- ③ ㅗ : wa
- ④ ㅛ : wae
- ⑤ ㅜ : wo
- ⑥ ㅠ : we
- ⑦ ㅡ : ui

4. 자음

- ① ㄱ : kk
- ② ㄷ : tt
- ③ ㅍ : pp
- ④ ㅈ : jj
- ⑤ ㅊ : ch
- ⑥ ㄹ : r, l

5. 중요한 단어들 (1) (장단음 별도 표시 안함)

- ① 광희문 [광히문] Gwanghuimun
- ② 백암 [배감] Baegam
- ③ 합덕 [합떡] Hapdeok
- ④ 설악 [서락] Seorak
- ⑤ 칠곡 [칠곡] Chilgok
- ⑥ 대관령 [대괄령] Daegwallyeong
- ⑦ 종로 [종노] Jongno
- ⑧ 학여울 [향녀울] Hangnyeoul
- ⑨ 종고 [조코] joko
- ⑩ 묵호 [무코] Mukho
- ⑪ 집현전 [지편전] Jiphyeonjeon
- ⑫ 압구정 [압꾸정] Apgujeong

6. 중요한 단어들 (2) (장단음 별도 표시 안함)

- ① 남산 [남산] Namsan
- ② 금강 [금강] Geumgang
- ③ 안압지 [아납찌] Anapji
- ④ 화랑대 [화랑대] Hwarangdae
- ⑤ 오죽헌 [오주컨] Ojukheon
- ⑥ 속리산 [송니산] Songnisan
- ⑦ 극락전 [긍낙쩨] Geungnakjeon
- ⑧ 독립문 [동님문] Dongnimmun
- ⑨ 축석루 [축썩누] Chokseongnu
- ⑩ 다보탑 [다보탑] Dabotap

2. 한글 맞춤법

PART 5. 응용 ② - 1. 띄어쓰기(기본)

1. 떨리는 : 부사 + 보조사
2. 웃고만 : 어미 + 보조사
3. 아는 것이 힘이다. (○)
4.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
5.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
6.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
7. 지금 상황이 참 볼 만하다. (○)
8.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
9. 그가 떠난 지 모름이 지났다. (○)
10. 고향에 갔던 차에 선을 보았다. (○)
11. 사업차 외국에 나갔다. (○)
12. 조기 한 손 (○)
(손 : 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13. 버선 한 죽 (○) (죽 : 10벌)
14. 달걀 한 꾸러미 (○) (꾸러미 : 달걀 10개)
15. 오징어 한 축 (○) (축 : 20마리)
16. 조기 한 두름 (○) (두름 : 20마리)
17. 북어 한 쾌 (○) (쾌 : 20마리)
18. 바늘 한 쌈 (○) (쌈 : 24개)
19. 오이 한 거리 (○) (거리 : 50개)
20. 김 한 툇 (○) (툇 : 100장)
21. 삼 학년(○), 삼학년(○)
22. 80 원(○), 80원(○)
23. 육 층(○), 육층(○)
24. 국장 겸 과장(○) (겸 : 의존 명사)
25. 열 내지 스물(○) (내지 : 부사)
26. 이사장 및 부사장 (○) (및 : 부사)
27. 채영신 씨 (○), 김씨(○)
28. 도면 그리기(○), 도면그리기(○)

7회차	내용	어문규정
	목표	암기

2. 한글 맞춤법

PART 5. 응용 ② - 2. 띄어쓰기(보조 용언)

1. 불이 꺼져 간다. (○), 불이 꺼져간다. (○)
2. 비가 올 듯하다. (○), 비가 올듯하다. (○)
3. 아는 척하다. (○), 아는척하다.(○)
4. 알은체하다. (○)
5. 아는 체하다. (○), 아는체하다.(○)
6. 밀어내 버렸다. (○)
7. 집어넣어 둔다.(○)
8. 먹었음 직하다. (○), 먹었음직하다. (○)
9. 책상이 작은가 싶다. (○)
10. 그가 밥을 먹나 보다. (○)
11. 집에 갈까 보다. (○)
12. 낙서가 지워진다. (○)
13. 아기를 예뻐한다. (○)
14. 먹고 싶어 하다. (○), 먹고싶어 하다. (×)
15. 나가 버렸다. (○), 나가버렸다. (○)
16. 적어 둘 만하다. (○), 적어둘 만하다. (○)

PART 6. 암기 ③ - 어려운 단어 모음

1. 알음(○)
2. 견히다(○), 거치다(○)
3. 견잡다(○), 겹잡다(○)
4. 늘이다(○), 늘리다(○)
5. 닫히다(○), 닫치다(○)
6. 맞히다(○), 맞추다(○)
7. 받히다(○), 받치다(○), 받치다(○)
8. 부딪히다(○), 부딪치다(○)
9. 부치다(○), 붙이다(○)
10. 이따가(○), 있다가(○)
11. 그러므로(○), 그럼으로(씨)(○)
12. 하노라고(○), 하느라고(○)
13. 로서(○), 로써(○)
14. -느지(○), 지(의존명사) (○)
15. -는데(○), 데(의존명사) (○)
16. -듯이(○), 듯(의존명사) (○)
17. -느바(○), 바(의존명사) (○)
18. -더라(○), -든지(○)
19. 반질고리(○)
20. 사흘날(○)
21. 설달(○)
22. 푼소(○)
23. 잔주름(○), 잔주름(○)
24. 잔다듬다(○), 잔다랗다(○)
25. 선부르다(○)
26. 다달이(○), 달달이(×)
27. 무자위(○), 물자위(×)
28. 마소(○), 말소(×)

8회차	내용	중세 국어
	목표	훈민정음 해례본

1. ㄱ·늘 :엄쏘·리·니 **君군ㄷ字·쫙·처썸** ·펴·아 ·
나·늘 소·리 ·ㄱ·뜩·니,
[현대역] ㄱ은 어금닛소리이다.
 2. ㄴ·바·쓰·면 **蝸蛄병字·쫙·처썸** ·펴·아·나·늘
소·리 ·ㄱ·뜩·니·라.
[현대역] ㄱ은 ‘ㄴ’을 나란히 쓴 소리이다.
 3. ㅋ·늘 :엄쏘·리·니 **快·행ㅎ字·쫙·처썸** ·펴·아
·나·늘 소·리 ·ㄱ·뜩·니·라.
[현대역] ㅋ은 어금닛소리이다.
 4. ㅇ·늘 :엄쏘·리·니 **業·업字·쫙·처썸** ·펴·아 ·
나·늘 소·리 ·ㄱ·뜩·니·라.
[현대역] ㅇ은 어금닛소리이다.
-

5. ㄷ·늘 ·혀쏘·리·니 **斗·둥병字·쫙·처썸** ·펴·아
·나·늘 소·리 ·ㄱ·뜩·니
[현대역] ㄷ은 혃소리이다.
 6. ㄸ·바·쓰·면 **覃覃병字·쫙·처썸** ·펴·아 ·나·늘
소·리 ·ㄱ·뜩·니·라.
[현대역] ㄸ은 ‘ㄷ’을 나란히 쓴 소리이다.
 7. ㅌ·늘 ·혀쏘·리·니 **呑呑ㄷ字·쫙·처썸** ·펴·아
·나·늘 소·리 ·ㄱ·뜩·니·라.
[현대역] ㅌ은 혃소리이다.
 8. ㄴ·늘 ·혀쏘·리·니 **那·낭ㅎ字·쫙·처썸** ·펴·아 ·
나·늘 소·리 ·ㄱ·뜩·니·라.
[현대역] ㄴ은 혃소리이다.
-
9. ㅂ·늘 입사·울쏘·리·니 **弊·병字·쫙·처썸** ·펴·
아 ·나·늘 소·리 ·ㄱ·뜩·니
[현대역] ㅂ은 입술소리이다.
 10. ㅃ·바·쓰·면 **步·뽕ㅎ字·쫙·처썸** ·펴·아 ·나·늘
소·리 ·ㄱ·뜩·니·라.
[현대역] ㅃ은 ‘ㅂ’을 나란히 쓴 소리이다.
 11. ㅍ·늘 입사·울쏘·리·니 **漂·뽕병字·쫙·처썸** ·
펴·아 ·나·늘 소·리 ·ㄱ·뜩·니·라.
[현대역] ㅍ은 입술소리이다.
 12. ㅍ·늘 입사·울쏘·리·니 **彌·밍ㅎ字·쫙·처썸** ·
펴·아 ·나·늘 소·리 ·ㄱ·뜩·니·라.
[현대역] ㅍ은 입술소리이다.
-

13. ㅈ·ㄴ ·니·쏘·리·니 **即·즉字·쫙·처십** ·펴·아
·나·는 소·리 ·ㄱ·ㅌ·니·라.

[현대역] ㄱ은 잇소리이다.

14. ㄱ·바·쓰·면 **慈·쫙ㅁ字·쫙·처십** ·펴·아 ·나·는
소·리 ·ㄱ·ㅌ·니·라.

[현대역] ㅈ은 ‘ㄱ’을 나란히 쓴 소리이다.

15. ㅊ·ㄴ ·니·쏘·리·니 **侵·침ㅁ字·쫙·처십** ·펴·아
·나·는 소·리 ·ㄱ·ㅌ·니·라.

[현대역] ㅊ은 잇소리이다.

16. ㅅ·ㄴ ·니·쏘·리·니 **成·송字·쫙·처십** ·펴·아
·나·는 소·리 ·ㄱ·ㅌ·니·라.

[현대역] ㅅ은 잇소리이다.

17. ㄱ·바·쓰·면 **邪·쌍ㅁ字·쫙·처십** ·펴·아 ·나·는
소·리 ·ㄱ·ㅌ·니·라.

[현대역] ㅈ은 ‘ㅅ’을 나란히 쓴 소리이다.

18. ㅎ·ㄴ 목·소·리·니 **掘·음字쫙·처십** ·펴·아 ·나
는 소·리 ·ㄱ·ㅌ·니·라.

[현대역] ㅎ은 목구멍소리이다.

19. ㅎ·ㄴ 목·소·리·니 **虛·형ㅁ字쫙·처십** ·펴·아
·나·는 소·리 ·ㄱ·ㅌ·니·라.

[현대역] ㅎ은 목구멍소리이다.

20. ㄱ·바·쓰·면 **洪·홍ㅁ字·쫙·처십** ·펴·아 ·나·는
소·리 ·ㄱ·ㅌ·니·라.

[현대역] ㅎ은 ‘ㅎ’을 나란히 쓴 소리이다.

21. ㅇ·ㄴ 목·소·리·니 **欲·욕字·쫙·처십** ·펴·아 ·
나·는 소·리 ·ㄱ·ㅌ·니·라.

[현대역] ㅇ은 목구멍소리이다.

22. ㄹ·ㄴ ㅁ·반·허·쏘·리·니 **閨·령ㅁ字쫙·처십** ·
펴·아 ·나·는 소·리 ·ㄱ·ㅌ·니·라.

[현대역] ㄹ은 반혓소리이다.

23. ㄷ·ㄴ ㅁ·반·니·쏘·리·니 **穰·상ㅁ字·쫙·처십** ·
펴·아 ·나·는 소·리 ·ㄱ·ㅌ·니·라.

[현대역] ㄷ은 반잇소리이다.

24. ㄹ는 **呑呑ㄷ字** 家·온·뒷소·리 ·ㄱ·ㅌ니·라.
[현대역] 가운뎃소리에 ‘ㄹ’가 있다.

25. ㄴ는 **卽·즉字** 家·온·뒷소·리 ·ㄱ·ㅌ니·라.
[현대역] 가운뎃소리에 ‘ㄴ’가 있다.

26. ㅣ는 **侵침ㅂ字** 家·온·뒷소·리 ·ㄱ·ㅌ니·라.
[현대역] 가운뎃소리에 ‘ㅣ’가 있다.

27. ㄱ는 **洪洪ㄱ字** 家·온·뒷소·리 ·ㄱ·ㅌ니·라.
[현대역] 가운뎃소리에 ‘ㄱ’가 있다.

28. ㅏ는 **覃覃ㅂ字** 家·온·뒷소·리 ·ㄱ·ㅌ니·라.
[현대역] 가운뎃소리에 ‘ㅏ’가 있다.

29. ㄴ는 **君君ㄷ字** 家·온·뒷소·리 ·ㄱ·ㅌ니·라.
[현대역] 가운뎃소리에 ‘ㄴ’가 있다.

30. ㅑ는 **業業字** 家·온·뒷소·리 ·ㄱ·ㅌ니·라.
[현대역] 가운뎃소리에 ‘ㅑ’가 있다.

31. ㄹ는 **欲·욕字** 家·온·뒷소·리 ·ㄱ·ㅌ니·라.
[현대역] 가운뎃소리에 ‘ㄹ’가 있다.

32. ㅑ는 **穰穰ㄱ字** 家·온·뒷소·리 ·ㄱ·ㅌ니·라.
[현대역] 가운뎃소리에 ‘ㅑ’가 있다.

33. ㅠ는 **戌·송字** 家·온·뒷소·리 ·ㄱ·ㅌ니·라.
[현대역] 가운뎃소리에 ‘ㅠ’가 있다.

34. ㅑ는 **警·병字** 家·온·뒷소·리 ·ㄱ·ㅌ니·라.
[현대역] 가운뎃소리에 ‘ㅑ’가 있다.

35. 乃·냉終중 ㄱ 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쓰·
는·니·라.

[현대역] 종성은 다시 첫소리를 쓴다는 의미이다.

7종성법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8종성법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36. ㅇ·를 입사·울쏘·리 아·래 니·서·쓰·면 입사·
울가·비아·**·분소·리** 득·외·는·니·라.

[현대역] ㅇ을 입술소리 아래 이어 쓰면 ‘빙, 땡,
퐁’이 된다.

37. ·첫소·리·를 ·어·울·워 ·뿜·다·면 ㄱ·바·쓰·
라. 乃·냉終중 ㄱ 소·리·도 ㅎ·가·지·라.

[현대역] 초성에 겹자음, 쌍자음이 있다면, 종성도
마찬가지이다.

38. ·와 ㅡ·와 ㅏ·와 ㅑ·와 ㅓ·와 ㅕ·와 ㅗ·와 ㅛ·와·란 ·첫소·
리 아·래 브·터 ·쓰·고,

[현대역] ‘·, ㅡ, ㅏ, ㅑ, ㅓ, ㅕ, ㅗ, ㅛ’는 초성 아래에
붙여 쓴다.

39. ㅣ·와 ㅜ·와 ㅝ·와 ㅞ·와 ㅟ·와·란 ·울·흔·녀·기
부·터 ·쓰·라.

[현대역] ‘ㅣ, ㅜ, ㅝ, ㅞ, ㅟ’는 초성 오른쪽에 붙
여 쓴다.

40. ㅁ·릿 ㅈ·쫘 | 모·로·매 어·우·러·샤 소·리 :이
는·니, :원·녀·기 ㅎ 點·뎡·을 더·으·면 ·뭇·노·핀
소·리·오 點·뎡·이 :들·히·면 上·쌍·聲·성·이·오
點·뎡·이 :업·스·면 平·聲·성·이·오 入·聲·성·
은 點·뎡· 더·우·른 ㅎ·가·지·로·되 썩·르·니·라

[현대역] 방점에 대한 설명이다.

점이 ‘1’면 거성, 점이 ‘2’면 쌍성, 점이
없으면 ‘평성’, 입성은 ‘무점, 1점, 2점’
등 다양하며 빠르게 끝나는 소리이다.

8회차	내용	중세 국어
	목표	교재(현대어 풀이)

P.157 11. 중세국어 문장 분석 자료 (1)

[현대어 풀이]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몸과 형체와 머리털과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다. 감히 험하게 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시작이며, 입신(출세)하여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날려 이로써 부모를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끝이니라.

P.157 11. 중세국어 문장 분석 자료 (2)

[현대어 풀이]

맑은 강 한 굽이가 마을을 안아 흐르는데 긴 여름 강촌에 일마다 그윽하구나. 절로 가며 절로 오는 것은 집 위의 제비이고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까운 것은 물 가운데 갈매기로구나.

P.157 11. 중세국어 문장 분석 자료 (3)

[현대어 풀이] 부처의 말씀을 듣되
[현대어 풀이] 일곱 걸음을 걸으시며 이르시되
[현대어 풀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P.158 11. 중세국어 문장 분석 자료 (4)

[현대어 풀이]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현대어 풀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P.158 11. 중세국어 문장 분석 자료 (5)

[현대어 풀이]

나중 소리(종성)는 다시 첫소리(초성)를 쓴다. ㅇ을 입술소리 아래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 첫소리를 아울러 쓰려면 나란히 써야 하니 나중 소리도 마찬가지이다.

P.158 11. 중세국어 문장 분석 자료 (6)

[현대어 풀이]

천 세(千世)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에, 여러 대를 물린 어진 임금의 나라를 여[開]시어 왕조가 끝이 없으시니, 성신(聖神)이 대를 이으시어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섬겨야 더욱 굳건할 것입니다. 임금이시여, 아소서. 낙수(洛水)에 사냥을 가 있으면서 할아버지를 믿으시겠습니까?

P.159 11. 중세국어 문장 분석 자료 (7)

[현대어 풀이]

海東(해동) 六龍(육룡)이 내[飛]셔서 일마다 天福(천복)이시니. 古聖(고성)과 同符(동부)하시니

〈제1장〉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내[川]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느니.

〈제2장〉

속담 기초 150개

DAY 1

- ① 가게 기둥에 입춘[주런] : 추하고 보잘것없는 가갯집 기둥에 '입춘대길'이라 써 붙인다는 뜻으로, 제격에 맞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가난 구제는 나라[나라님/임금]도 못한다[어렵다] :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 이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
- ③ 가문 눈에 물 대기 : 일이 매우 힘들거나 힘들여 해 놓아도 성과가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
- ④ 가재는 게 편이요 초록은 한 빛이라 :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 주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갓 쓰고 망신(한다) : 한껏 점잔을 빼고 있는데 뜻하지 아니한 망신을 당하여 더 무참하게 되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⑥ 강원도 삼척 : 방이 몹시 추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삼척은 삼척의 잘못된 발음으로, 삼척(三廳) 즉 옛날 금군 삼척(禁軍三廳)의 방에는 늘 불을 때지 않아 방이 매우 찻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 ⑦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검정 송아지/과부 집 머슴살이/처녀] : 값이 같거나 같은 노력을 한다면 품질이 좋은 것을 택한다는 말.
- ⑧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먹는다] : 돈을 벌 때는 천한 일이라도 하면서 벌고 쓸 때는 떳떳하고 보람 있게 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⑨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 형편이나 사정이 전에 비하여 나아진 사람이 지난날의 미천하거나 어렵던 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⑩ 개도 안 짓고 도적(을) 맞는다 : 미처 손쓸 사이도 없이 감쪽같이 잃어버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DAY 2

- ① 개 목에 방울(이라) : 옷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제격에 맞지 아니하여 어울리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개미구멍으로 공든 탑 무너진다 : 조그마한 실수나 방심으로 큰일을 망쳐 버린다는 말.
- ③ 거꾸로 매달아도 사는 세상이 낫다 : 아무리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나음을 이르는 말.
- ④ 거미줄에 목을 맨다 : 칼도 아닌 송편으로 목을 딸 노릇이라는 뜻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로 몹시 억울하고 원통함을 이르는 말.
- ⑤ 거짓말도 잘만 하면 논 닷 마지기보다 낫다 : 거짓말도 경우에 따라서는 처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사람은 아무쪼록 말을 잘해야 한다는 말.
- ⑥ 건넌산 보고 꾸짖기 : 본인에게 직접 욕하거나 꾸짖기가 거북할 때 다른 사람을 빗대어 간접적으로 꾸짖어서 당사자가 알게 한다는 말.
- ⑦ 검은 구름에 백로 지나가기 :
 「1」 정치 없이 떠돌아다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어떤 일을 해도 그 자취가 남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많은 것 가운데에서 유난히 표시가 뚜렷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⑧ 겉은 늙어도 속은 새파랗다 : 비록 몸은 늙었어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한창 젊었을 때와 같다는 말.
- ⑨ 게 등에 소금 치기 : 아무리 해도 쓸데없는 짓을 이르는 말.
- ⑩ 계란에도 뼈가 있다 : 늘 일이 잘 안되던 사람이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났건만, 그 일마저 역시 잘 안됨을 이르는 말.

DAY 3

- ① 고기도 저 놀던 물이 좋다 : 평소에 낯익은 제 고향이나 익숙한 환경이 좋다는 말.
- ②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고목에 꽃이 피랴 :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을 필요는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고양이기가 쥐를 마다한다 : 본디 좋아하는 것을 짐짓 싫다고 거절할 때 이를 비꼬는 말.
- 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다 :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고양이가 생선을 먹을 것이 뻔한 일이란 뜻으로, 어떤 일이나 사물을 믿지 못할 사람에게 맡겨 놓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 걱정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⑥ 고추는 작아도 맵다 : 몸집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재주가 뛰어나고 야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⑦ 곧은 나무 쉬[먼저] 꺾인다[찍힌대] :
 「1」 능력 있는 사람이 일찍 죽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겉으로는 강직한 듯한 사람이 의외로 약하여 잘 굴복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⑧ 공을 원수로 갚는다 : 감사로써 은혜에 보답해야 할 자리에 도리어 해를 끼침을 이르는 말.
- ⑨ 꽃감 꼬치를 먹듯 : 애써 알뜰히 모아 둔 재산을 조금씩 조금씩 헐어 써 없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⑩ 광대 끈 떨어졌다 :
 「1」 광대가 연기를 할 때 탈의 끈이 떨어졌다는 뜻으로, 의지할 데가 없어 꼼짝을 못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제구실을 다 하지 못하여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DAY 4

① 구관이 명관이다 :

「1」 무슨 일이든 경험이 많거나 익숙한 이가 더 잘하는 법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나중 사람을 겪어 봄으로써 먼저 사람이 좋은 줄을 알게 된다는 말.

② 구두 신고 발등 긁기 :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으면 긁으나 마나라는 뜻으로, 요긴한 곳에 직접 미치지 못하여 안타까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구름 갈 재 비가 간다 : 바늘이 가는 데 실이 항상 뒤따른다는 뜻으로, 사람의 긴밀한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구멍은 깎을수록 커진다 : 잘못된 일을 변명하고 얼버무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일이 어려워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구슬 없는 용 : 쓸모없고 보람 없게 된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⑥ 군밤에서 싹 나거든 :

「1」 아무리 바라도 소용이 없다는 말.

「2」 도저히 가망이 없는 조건을 이르는 말.

⑦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

「1」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남의 관심을 끌 만한 행동을 함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2」 무능한 사람도 한 가지 재주는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⑧ 굵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 자손이 빈한해지면 선산의 나무까지 팔아 버리나 줄기가 굵어 쓸모없는 것은 그대로 남게 된다는 뜻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도리어 제구실을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⑨ 그 나물에 그 밥 : 서로 격이 어울리는 것끼리 짝이 되었을 경우를 두고 이르는 말.

⑩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 :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도 배가 불러야 흥이 나지 배가 고파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DAY 5

- ① 급하기는 우물에 가서 승냥 달라졌다 : 성격이 매우 급하거나 일을 하는 데 매우 조급해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기둥보다 서까래가 더 굵다 : 주(主)가 되는 것과 그에 따르는 것이 뒤바뀌어 사리에 어긋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기와 한 장 아끼다가 대들보 썩힌다 : 조그마한 것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기침에 재채기 :
 「1」 어려운 일이 공교롭게 계속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일마다 공교롭게도 방해가 끼어 낭패를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길 아래 돌부처 : 무슨 일이나 아무 관계 없는 듯이 무심히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⑥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아무 관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⑦ 꽃 본 나비 담 넘어가랴 : 그리운 사람을 본 이가 그대로 지나쳐 가 버릴 리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⑧ 꿈을 꾸어야 임을 보지[분대] :
 「1」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⑨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 부분만 보고 전체는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⑩ 나중에 들어온 놈이 아랫목 차지한다 :
 「1」 늦게 왔지만 제일 좋은 조건을 차지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늦게 와서 주체넘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우쭐대는 경우를 놀림조로 이르는 말.

DAY 6

- ① 낙숫물이 뗏돌을 뚫는다 : 작은 힘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남의 잔치[장/제사]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 : 남의 일에 공연히 간섭하고 나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 : 기역 자 모양으로 생긴 낫을 보면서도 기역 자를 모른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내 코가 석 자 : 내 사정이 급하고 어려워져 남을 돌볼 여유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논두렁에 구멍 뚫기 : 논두렁에 구멍을 뚫어 논물이 새어 나가게 하는 못된 짓이라는 뜻으로, 매우 심술이 사나운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⑥ 눈 위에 서리 친다 :
「1」 어려운 일이 공교롭게 계속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일마다 공교롭게도 방해가 끼어 낭패를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⑦ 눈치가 참새 방앗간 찾기 : 눈치가 매우 빠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⑧ 다 된 죽에 코 빠졌다 : 거의 다 된 일을 망쳐버리는 주책없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⑨ 달도 차면 기운다 :
「1」 세상의 온갖 것이 한번 번성하면 다시 쇠하기 마련이라는 말.
「2」 행운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⑩ 달리는 말에 채찍질 :
「1」 기세가 한창 좋을 때 더 힘을 가한다는 말.
「2」 힘껏 하는데도 자꾸 더 하라고 한다는 말.

DAY 7

- ① 당구 삼 년에 폐풍월(吠風月) : 서당에서 삼 년 동안 살면서 매일 글 읽는 소리를 듣다 보면 개조차도 글 읽는 소리를 내게 된다는 뜻으로, 어떤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부문에 오래 있으면 얼마간의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 : 가윗날은 백곡이 익는 계절인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하고 즐거운 놀이를 하며 지낸 데서, 잘 먹고 잘 입고 편히 살기를 바라는 말.
- ③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 :
 「1」 일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애쓴 보람이 나타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도마에 오른 고기 : 이미 잡혀 움짱달짝 못하고 죽을 지경에 빠졌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돼지에 진주(목걸이) :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보물도 아무 소용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⑥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 :
 「1」 무슨 일이든지 두 편에서 서로 뜻이 맞아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
 「2」 서로 똑같기 때문에 말다툼이나 싸움이 된다는 말.
- ⑦ 뒤통박 팔자 : 입구가 좁은 뒤통박 속에 갇힌 팔자라는 뜻으로, 일단 신세를 망치면 거기서 헤어 나오기가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⑧ 땅 짚고 헤엄치기 :
 「1」 일이 매우 쉽다는 말.
 「2」 일이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는 말.
- ⑨ 띄엄띄엄 걸어도 황소걸음 : 속도는 느리나 오히려 믿음직스럽고 알차다는 말.
- ⑩ 마른논에 물 대기 : 일이 매우 힘들거나 힘들여 해 놓아도 성과가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

DAY 8

- ① 마른하늘에 날벼락[생벼락] : 뜻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뜻밖에 입는 재난을 이르는 말.
- ②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 음식을 매우 빨리 먹어 버리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다는 말.
- ④ 맑은 물에 고기 안 논다 : 사람이 지나치게 결백하면 남이 따르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
 「1」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남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말.
 「2」 강직한 사람은 남의 공박을 받는다는 말.
- ⑥ 모래 위에 선 누각[집] :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곧 허물어질 수 있는 물건이나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⑦ 무쇠도 갈면 비늘 된다 :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말.
- ⑧ 물 밖에 난 고기 :
 「1」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린 사람을 이르는 말.
 「2」 운명이 이미 결정 나 벗어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⑨ 물어도 준치 썩어도 생치 : 본래 좋고 훌륭한 것은 비록 상해도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⑩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 덕이 높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겉으로 떠벌리고 잘난 체하거나 뽐내지 않는다는 말.

DAY 9

- ① 밑돌 빼서 윗돌 고인다 : 기껏 한다는 짓이 밑에 있는 돌을 뽑아서 위에다 고여 나간다는 뜻으로, 일한 보람이 없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비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 비늘을 훔치던 사람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소까지도 훔친다는 뜻으로, 작은 나쁜 짓도 자꾸 하게 되면 큰 죄를 저지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백문이 불여일견(不如一見) :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는 것이 확실하다는 말.
- 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여 하면 훨씬 쉽다는 말.
- ⑥ 번갯불에 콩 볶아 먹겠다 :
 「1」 번쩍하는 번갯불에 콩을 볶아서 먹을 만하다는 뜻으로, 행동이 매우 민첩함을 이르는 말.
 「2」 하는 짓이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을 만큼 급하게 군다는 뜻으로, 어떤 행동을 당장 해치우지 못하여 안달하는 조급한 성질을 이르는 말.
- ⑦ 벼룩의 간을[선지를] 내먹는다 :
 「1」 하는 짓이 몹시 잘거나 인색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서 금품을 뜯어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⑧ 벽에도 귀가 있다 : 비밀은 없기 때문에 경솔히 말하지 말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⑨ 불로초를 먹었다 : 보통 이상으로 장수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
- ⑩ 빈 수레가[달구지개] 요란하다 : 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들어 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DAY 10

- ① 빛 좋은 개살구 :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띠고 있지만 맛은 없는 개살구라는 뜻으로,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올라간다] : 여러 사람이 저마다 제 주장대로 배를 몰려고 하면 결국에는 배가 물로 못 가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뜻으로, 주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사후 약방문[청심환] :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약을 구한다는 뜻으로, 때가 지나 일이 다 틀어진 후에야 뒤늦게 대책을 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산은 오를수록 높고 물은 건널수록 깊다 :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새벽 봉창 두들긴다 :
 「1」 한참 단잠 자는 새벽에 남의 집 봉창을 두들겨 놀라 깨게 한다는 뜻으로, 뜻밖의 일이나 말을 갑자기 불쑥 내미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너무나도 뜻밖의 일을 당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⑥ 서울 (가서) 김 서방 찾는다[찾기] : 넓은 서울 장안에 가서 주소도 모르고 덮어놓고 김 서방을 찾는다는 뜻으로, 주소도 이름도 모르고 무턱대고 막연하게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⑦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죽인다] : 의술에 서투른 사람이 치료해 준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뜻으로, 능력이 없어서 제구실을 못하면서 함부로 하다가 큰일을 저지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⑧ 섶을 지고 불로 들어가려 한다 : 당장에 불이 붙을 섶을 지고 이글거리는 불 속으로 뛰어든다는 뜻으로, 앞뒤 가리지 못하고 미련하게 행동함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 ⑨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난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
- ⑩ 쇠귀에 경 읽기 : 소의 귀에 대고 경을 읽어 봐야 단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

DAY 11

- ① 아는 것이 병[탈] :
 「1」 정확하지 못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지식은 오히려 걱정거리가 될 수 있음을 이르는 말.
 「2」 아무것도 모르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여 좋으나, 무엇이나 좀 알고 있으면 걱정거리가 많아 도리어 해롭다는 말.
- ② 아는 길도 물어 가랬다 :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
- ③ 아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 잘되리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반하여 오히려 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아니 뎨 굴뚝에 연기 날까 :
 「1」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있을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실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말이 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아랫돌 빼서 잇돌 괴고 잇돌 빼서 아랫돌 괴기 : 일이 몹시 급하여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 맞추어 일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⑥ 안중에 사람이 없다 : 남의 일에는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어려워하지도 아니하며 함부로 나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⑦ 약방에 감초 : 한약에 감초를 넣는 경우가 많아 한약방에 감초가 반드시 있다는 데서, 어떤 일이나 빠짐없이 끼어드는 사람 또는 꼭 있어야 할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⑧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 지지리 못난 사람일수록 같이 있는 동료로 망신시킨다는 말.
- ⑨ 언 발에 오줌 누기 : 언 발을 녹이려고 오줌을 누어 봤자 효력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⑩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 자기의 능력 밖의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

DAY 12

- ① 용 못 된 이무기 : 의리나 인정은 찾아볼 수 없고 심술만 남아 있어 남에게 손해만 입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원님 덕에 나팔[나발] 분다 : 사또와 동행한 덕분에 나팔 불고 요란히 맞아 주는 호화로운 대접을 받는다는 뜻으로, 남의 덕으로 당치도 아니한 행세를 하게 되거나 그런 대접을 받고 우쭐대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 윗사람이 잘하면 아랫사람도 따라서 잘하게 된다는 말.
- ④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가 망하면 다른 하나도 망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입에서 젓내가 난다 : 나이가 어려 하는 말이나 행동이 유치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⑥ 입이 포도청 : 먹고살기 위하여,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
- ⑦ 잉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뜬다 : 남이 한다고 하니까 분별없이 덩달아 나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⑧ 자는 별집 건드린다 : 그대로 가만히 두었으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을 공연히 건드려 문제를 일으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⑨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뎡[솔뚜껑] 보고 놀란다 : 어떤 사물에 몹시 놀란 사람은 비슷한 사물만 보아도 겁을 냄을 이르는 말.
- ⑩ 자루 속의 송곳 : 송곳은 자루에 있어도 밖으로 빠져나와 송곳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아무리 숨기려 하여도 숨길 수 없고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DAY 13

- ① 작년에 왔던 각설이 또 찾아왔다 : 반갑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찾아왔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잔디밭에서 바늘 찾기 :
「1」 아무리 애쓰며 수고해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성과 없는 헛수고를 이르는 말.
- ③ 잔병에 효자 없다 : 부모가 늘 잔병을 앓고 있으면 자식이 변함없이 효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
- ④ 잠을 자야 꿈을 꾸지 :
「1」 어떤 성과를 거두려면 그에 상당한 노력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말.
「2」 원인 없이 결과를 바랄 수 없음을 이르는 말.
- ⑤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다 : 사람이 겉으로 좋고 훌륭하여 보여도 남을 해롭게 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 상대방이 해를 입을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⑥ 재하자는 유구무언(이라) : 아랫사람은 웃어른에 대하여 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지냄을 이르는 말.
- ⑦ 쟁기질 못하는 놈이 소 탓한다 : 할 줄 모르는 저를 탓하지 아니하고 도구를 탓한다는 뜻으로, 자기의 능력 부족을 남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⑧ 정승도 저 싫으면 안 한다 :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제 마음에 내키지 아니하면 좋을 게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⑨ 제갈량이 왔다가 울고 가겠다 : 지략으로 유명한 제갈량이 상대의 지략에 놀라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여 울고 돌아가겠다는 뜻으로, 지혜와 지략이 매우 뛰어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⑩ 제 눈에 물 대기 : 자기에게만 이롭도록 일을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DAY 14

- 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빙고에서/한강에 가서/행랑 뒤에서] 눈 흘긴다 :
 「1」 욕을 당한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뒤에 가서 불평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노여움을 애매한 다른 데로 옮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쥐구멍에도 별 들 날 있다 : 몹시 고생을 하는 삶도 좋은 운수가 터질 날이 있다는 말.
- ③ 지나가는 달팽이도 났으면 꿈틀한다 : 아무리 놀려 지내는 미천한 사람이나, 순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 업신여기면 가만있지 아니한다는 말.
- ④ 차면 넘친다[기운대] :
 「1」 너무 정도에 지나치면 도리어 불완전하게 된다는 말.
 「2」 세상의 온갖 것이 한번 번성하면 다시 쇠하기 마련이라는 말.
- ⑤ 참새가 방앗간[을조밭]을 그저 지나랴 :
 「1」 욕심 많은 사람이 이곳을 보고 가만있지 못한다는 말.
 「2」 자기가 좋아하는 곳은 그대로 지나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⑥ 창공에 뜬 백구 : 손에 잡히지 아니하여서 실속 없고 소용없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⑦ 첫가을에는 손톱 발톱도 다 먹는다 : 가을에는 모든 것이 무르익어 먹는 것은 무엇이나 다 보약이 된다는 말.
- ⑧ 초가삼간 다 타도 빈대 죽는 것만 시원하다 : 비록 자기에게 큰 손해가 있더라도 제 마음에 들지 아니하던 것이 없어지는 것만은 상쾌하다는 말.
- ⑨ 축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 : 힘에 겨운 일을 억지로 하면 도리어 해만 입는다는 말.
- ⑩ 치마가 열두 폭인가 :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고 참견함을 비꼬는 말.

DAY 15

- ① 칼로 물 베기 : 다투었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 곧 사이가 다시 좋아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콩으로 메주를 쑤다 하여도 곧이듣지 않는다 : 아무리 사실대로 말하여도 믿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큰 고기는 깊은 물속에 있다 : 훌륭한 인물은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 잘 드러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탕건 쓰고 세수한다 :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그다음에 망건을 쓰는 법인데 망건을 먼저 쓰고 세수를 한다는 뜻으로, 일의 순서를 바꾸어 함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 ⑤ 토끼 죽으니 여우 슬퍼한다 : 같은 부류의 슬픔이나 괴로움 따위를 동정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⑥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당사자의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역지로 시킬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⑦ 폭풍 전의 고요 : 무슨 변이 터지기 전에 잠깐 동안 고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⑧ 하늘 보고 침 뺏기 : 하늘을 향하여 침을 뺏어 보아야 자기 얼굴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자기에게 해가 돌아올 징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⑨ 한술 밥에 배부르랴 :
「1」 어떤 일이든지 단번에 만족할 수는 없다는 말.
「2」 힘을 조금 들이고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
- ⑩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
「1」 적은 힘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쓸데없이 많은 힘을 들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커지기 전에 처리하였으면 쉽게 해결되었을 일을 방치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